



제 8 편 인물人物

제1장 장수삼절 長水三節

제 1 절 충절의 표상 의암 주논개(義巖 朱論介)

1846년(憲宗 12년 丙午) 전라도 장수읍의 호비정거리(현재 구 경찰서 앞에서 서장 관사를 지나 산림조합 정문앞 사거리까지)에는 장수의 경사가 생겨 군민 수천명이 모여 의암 주논개의 수명비(堅名碑) 낙성식을 축하하였다.

당시의 현감(縣監) 정주석(鄭胄錫)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진주 남강에서 왜군의 공성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의 허리를 안고 물에 떨어져 순절한 주논개(朱論介)와 장수향교를 불태우려 침입한 왜군을 꾸짖어 감동시켜 향교의 원형을 완전히 보존케 한 충북 정경손(丁敬孫)과 숙종(肅宗) 4년 무오(戊午) 3월 22일 현감 조종면(趙宗冕)을 수행하여 민정을 시찰하다가 천천면(天川面) 장판리 앞 장척애(長尺岬)에서 뿔이 갑작스레 날아가는 소리에 놀라 뛰는 말과 함께 깊은 소에 빠진 현감의 뒤를 따라 순직한 순의리(殉義吏) 등 3명을 당시 조정의 예조(禮曹)에서 삼강(三綱)을 지켜 국민의 모범이 되는 충신 효자 열녀를 모아 저술하는 삼강행실도(三綱行室圖)에 추천하는 장계를 올려 이 세 사람이 모두 삼강행실도에 게재됨으로써 장수현에서는 이 세분을 장수삼절(長水三節)로 추앙하여 장수의 상징으로 삼아 후세사람들의 표상이 되게 하였다.

논개수명비



정주석(鄭胄錫) 현감이 부임하기 약 45년전 최수형(崔壽亨) 현감이 부임하여 장척애에 순의리(殉義吏)의 타루비(墮淚碑)를 세웠으나 의암 주논개와 충북 정정손의 비석은 이때까지 세우지 못하여 군민이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주석 현감이 부임하여 두 분의 충절에 대한 포양(褒揚)하는 차원에서 호비정거리에서 의암 주논개의 비각(碑閣)을 세우고 향교 앞에 정정손의 비각을 세우는 거사를 시작한 반년의 세월이 지나 마침내 준공, 낙성식을 거행

하게 되자 군민들은 구름같이 몰려와 이 성사를 구경하였다.

현감 정주석 선생은 비석에 명문장을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도록 하여 현재까지 전하여 온다.

疾風板蕩 不苟不易 烈士所難而一女子 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當日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尚 況人之名乎 節源於天性 布人耳目者乎 愧余六旬腐儒 無成己之功 每於如斯人 豐功義烈 艷服起敬 尋常感慨 今於義妓豎名傳後 以生乎趨

走下風之願 謹以書記識

崇禎紀元後四丙午季秋上澣

知縣西原 鄭胄錫 謹識

子幼學 基永 謹書

碑有司 密城 朴吉仁

『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어지러울 때 구차하게 살지 않음이 쉽지 않음은 열사로도 어려운 일인데 일개 여자가 대의를 변별하여 죽는 것을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았으니 얼마나 그리 빛나며 매운가!

당일을 상상해보면 위엄과 늠름한 기개가 해와 별처럼 빛나니. 얼마나 그 장한가! 산에는 성스러운 버섯이 있고 물에는 맛있는 샘물이 있어 군자도 가상하다 일컬으니 향차 사람의 이름에 있어서라! 절의는 그 근원이 천성에 있으니 어찌 사람의 이목을 의식할 것인가.

나는 육순의 썩은 선비로서 종내 스스로의 공을 이루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노라.

매양 이와 같은 사람 큰공과 의열에 크게 감복하고 공경하여 의례 감개한다.
지금 의기에 이름을 새겨 후세에 전하여 평생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글로써 기록하노라.

승정기원후 사병오 구월 선보름에
지현 서원 정주석 삼가지음
아들 유학 기영 삼가글씨 씀
비유사 밀성 박길인

주논개의 생장향(生長鄕)인 장수읍에 수명비각이 건립됨으로 더욱 세상에 알려졌으며 오래도록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던 주논개의 충절과 위대한 순국정신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사(四) 갑술(甲戌)의 여아 탄생



주촌마을 전경

부인의 성씨는 주(朱)씨이며 관향은 신안(新安)이며 의암(義巖)은 국가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 동양성리학(東洋性理學)의 시조라 이르는 주부자(朱夫子)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로 고려 때 이부상서(吏部尙書)의 벼슬에 올랐던 인장(印長) 조선조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 승천(勝遷) 승정원 우승지(承政院 右承旨) 공으로 세계(世系)를 이어 7대손인 금교찰방(金郊察訪) 무현(武賢)에 이르러 관직이 끊어졌으며 6대조 증직통덕랑(贈職通德郎)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상도 안의현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慶尙道 安義縣 西上面 金塘里 芳池마을)에 들어와 정착하였는데 이 마을이 신안주씨(新安朱氏)의 집성촌(集姓村)이 되었다. 부인의 조부인 通政大夫 용일(溶一)이 전라도 장수현 임현내면 주촌(全羅道 長水縣 任縣內面 朱村)마을에 들

어와 학당을 차리고 아동들을 훈육하는 훈장이 되었다. 아버지 달문(達文)은 부친의 대를 이어 훈장으로 가업을 삼고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장성하여 안 의현 서하면 봉정마을의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규수에게 장가들어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남아를 출산하여 ‘대룡(大龍)’이라 이름 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나이 15세에 괴질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다.

후사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주씨 가문에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를 느껴 무척 기뻐하였다.

574년(宣祖 7年 甲戌) 9월 3일 박씨부인은 산기를 느껴 분만준비를 하였으며 밤 술시(戌時)에 여아를 출생하였다.

서당에서 아동을 가르치던 주달문에게 여아의 출생을 전달한 사람은 주달문의 아우 주달무(朱達武)였다. 주달문은 몇 손가락을 꼽아 보고서 ‘매우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하면서 내실로 들어갔다. 산모는 여아를 출산하고서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남편 주달문은 실의에 빠져 있는 부인을 위로하여 ‘비록 여아를 분만하였으나, 아이의 사주가 아주 기이하오. 갑술(甲戌)년 갑술(甲戌)월 갑술(甲戌)일 갑술(甲戌)시에 태어나 사갑술(四甲戌)의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났소. 장차 큰일을 성취할 것이며, 높은 명성을 얻을 것이나 우리 부부 나이 늙어 대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한스러울 뿐이요’ 라고 위로하였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의 이름을 사갑술의 뜻을 새겨 ‘개해’, ‘개달’, ‘개날’, ‘개시’ 라면 ‘개를 낳는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상도 방언(方言)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라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라고 지었다. 아버지는 아동교육의 여가를 틈타 논개에게 한문과 예도(禮道)를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논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는 비범한 지혜가 있어 아버지 주달문을 기쁘게 하며 놀라게 하였다.

숙부 주달무의 간계에 빠져

주색잡기와 행패를 일삼고 다니던 논개소녀의 숙부 주달무는 당시 그 지역에서 토호로 알려진 김풍헌(金風憲)을 찾아가 형의 유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체하며 자신의 행락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나 간교한 김풍헌은 주달무의 방탕함을 이용하여 백치불구(白痴不具)인 자식의 민며느리로 논개를



사를 것을 계획하였으니, 두 사람의 흥정은 쉽게 성립되었을 것이다. 김풍헌은 행락자금이 필요한 주달무를 설복시켜, 동내 앞 상답(上畓) 세마지기(三斗落)의 문서와 엽전 300냥, 당백포(唐白布) 세필에다 김풍헌의 아들 사주단자(四柱單子)를 주었다. 답문서와 엽전 등을 받아든 주달무는 그 돈을 주색잡기에 탕진할 때까지 주촌마을에 돌아가지 않았다. 돈을 탕진한 주달무는 김풍헌의 추궁과 재촉에 못 이겨 형수 박씨부인 앞에 김풍헌의 아들 사주단자를 내던지고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김풍헌은 황도길일을 택하여 혼례일(婚禮日)을 정하고 박씨부인에게 전달하게 되자 박씨부인과 논개소녀는 혼비백산의 청천벽력이 떨어지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모녀간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피하기 위하여 박씨부인의 친정인 안의현 서하면 봉정마을로 피신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었다.

가마와 시종들을 주촌마을에 보내서 민며느리로 샀다고 생각하는 논개소녀를 데리러 갔으나 허탕치고 돌아오자 김풍헌은 노발대발하여 소장(訴狀)을 만들어 장수현감에게 제출하고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1579년(宣祖 12年) 봄 장수읍 관아(官衙) 소선루(笑仙樓)앞 뜰에는 안의현에서 포졸에게 잡혀온 박씨부인과 논개소녀가 부복하고 있으며, 김풍헌과 여러 증인이 현감 최경회(崔慶會)의 사건심문을 받고 있었다. 심리가 끝나고 판결에서 최경회현감은 김풍헌에게 ‘무고한 사람을 무고(誣告)해서 괴롭히는 처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엄명을 내리고서 박씨부인과 논개소녀를 무죄방면의 영을 내렸다.

현감의 부인 나주김씨(羅州金氏)는 내아(內衙)에서 이 송사(訟事)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면된 논개소녀의 모녀를 내아에 불러 그 억울한 사정

을 듣고서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모녀를 내아에 머물면서 병약하여 자리에만 누워있는 자신의 시중을 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모녀는 최현감의 현명한 판결로 무죄방면 된 은혜를 보답하고, 우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최경회현감의 승낙을 얻어 내아에 머물면서 현감부인의 병시중을 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씨부인의 병간호와 최현감의 시중에 정성을 다하였다. 자색과 부덕을 겸비하였으며, 성실하고 영리한 논개소녀는 김씨부인의 감탄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부군 최경회현감에게 생명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자신을 대신해서 부인으로 맞이할 것을 최현감에게 권유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친절으로 돌아가는 박씨부인도 최현감의 뛰어난 인품과 재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최현감의 부인이 되라고 당부 하면서 돌아갔다.

노년에 숙질(宿疾)로 고생하던 박씨부인은 서하의 친절에서 사망하고 논개소녀의 정성어린 간호의 보람도 없이 나주김씨부인마저 이승을 떠났으니, 이제는 세상에 사고무친(四顧無親)의 고아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고는 최현감 밖에 없었다.

세월이 흘러 논개 나이 17 세가 되던 1590년 최경회가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1590년(宣祖 23年)의 봄 최현감의 부인이 되어 비로소 부부의 정으로 맺어지는 운명이 되었다. 그러나 신흔의 단꿈도 깨이기 전인 1592년(宣祖 25年) 4월 14일 부산포에 가토청정(加藤清正), 소서행장(小西行長)을 주축으로 왜군의 침략이 시작되어 이른바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였다.

당시 최경회 담양부사는 모친상을 당하여 부사직에서 물러나 고향 화순에서 2년여의 모상 중 임진왜란의 발발로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었다. 소수의 의병을 이끌고 전라감사(全羅監司) 이광(李光)이 영도하는 전라도구원군(全羅道救援軍)에 편성되어 수원의 독성(禿城)까지 진군하였으나, 이광은 유능한 장재(將才)인 황진(黃進), 정담(鄭澍), 최경회(崔慶會), 권율(權栗)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급수로(汲水路)가 없는 산상인 독성에 주력부대를 포진시켰다가 왜군의 예봉에 궤멸되고 말았다. 나주목사(羅州牧使) 권율과 최경회, 정담, 황진 등이 인솔한 소수의 병력만이 가벼운 피해로 귀향할 수 있었다. 뒤이어 조정에서는 권율목사의 장재를 인정하여 호남도원수(湖南都元帥)를 제수하였으며 전라감사도 겸직하게 하였다.

권을 도원수는 병력을 재배치하여 동북현감(同福縣監) 황진을 진산이치(珍山梨峙)에 김제군수(金堤郡守) 정담을 용담현(龍潭縣)에 의병장 최경회를 장수(長水)에 배치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왜군을 방어하게 하였다. 최경회 의병장은 장수현 임현내면 월강리(長水縣 任縣內面 月岡里) 앞 구릉(丘陵)에 장대를 설치하고, 의병초모(義兵招募)에 힘을 기울여 장수, 진안, 무주 등지에서 약 500여명의 장정을 초모할 수가 있었고, 장대 앞 넓은 들판을 조련장(訓練場)으로 이용하여 막강한 군대를 조련하여 골자(鵲字)부대로 이름 부쳤다.

논개부인은 민며느리 사건의 속죄를 바라는 김풍현이 풍천에 가대를 마련해 주고 보살핌으로 신내 마을에 안주할 수 있었다. 군무의 여가를 틈타 최장군과 같이 신희의 보급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의병들의 보살핌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조련을 마친 의병장(義兵將) 최경회는 근거지를 난공불락의 요새인 무주 적상산성(赤裳山城)으로 본부를 옮기고, 무주 우지치 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금산 경상도 지례(知禮), 진양, 개령, 산음, 성주 등지에서 왜적을 격파, 큰 무공을 세웠다.

당시 경상감사(慶尙監司) 김성일(金誠一)은 조정에 장계를 올려, 今此晉陽之捷 莫非崔慶會外援之力 ‘이번 진양의 승전은 최경회의 외부 원조의 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선조 임금께서는 무한히 칭찬하고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영전시켜 영지인 진주성(晉州城)에 임성시키고 국토의 서남방을 수어케 하였다.¹⁾

1) 《忠毅公日休堂實記》
(月岡洞創建本事)

부군을 따라 진주성에 가다



진주산성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가 된 최경회장군은 수하 의병 중에서 약 3,000명을 휘하에 이끌고 진주성에 입성하였으며 논개부인은 남장을 하고, 수일 후에 몇 사람의 수행원과 같이 풍천마을에서 말안장에 올라 300리 진주길을 떠났다. 지금도 풍천마을에는 논개 말탄 바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고향을 마지막 작별하는 결과가 되었다. 도중 안의현 서하면 봉정마을 외가(外家)에서 일박을 하고 다시 노정을 재촉하던 중 산음현 오부면(山陰縣 梧釜面) 부근에서 왜적의 척후병에 걸려 사로잡히는 경난을 겪었다. 왜병들은 부인을 재 넘어 왜군의 본거지인 창원(昌原) 근방으로 압송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진주성의 중요성을 강조, 섬진강을 지키던 방어사(防禦使) 김천일(金千鎰),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를 진주성에 입성케 하였다. 또한 왜적을 추적하여 경상도 상주적암(尙州赤岩)까지 진출한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장군에게도 진주성 방어명령을 내려, 진주에 진격 중 때마침 산음현 오부면을 지날 무렵 논개부인을 모셔가다 왜군에게 부상한 수행원으로부터 논개부인이 왜군에 붙들린 것을 알고서 이를 추격, 함안현 양곡(咸安縣 陽谷)에서 극적으로 구출하는데 성공하여 무사히 진주성에 입성하였다. 여러 장수들과 수인사를 마친 황진장군은 ‘진주입성 도중 왜적을 만나 교전하여 이를 섬멸하고 귀중한 전리품을 빼앗았으나, 여기가 경상우병사 관할구역이기에 도리상 최병사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다고’ 제의하자 최장군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싸워서 뺏은 사람이 차지해야 한다.’고 서로 양보하자 방어사 김천일 장군이 중재에 나서 전리품을 운반해 오게 하였는데, 교자 한 채가 들어오고, 그 교자에서는 논개부인이 있어, 최경회장군은 백배사죄하고 논개부인을 인수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²⁾

논개부인이 진주성에 입성한 후 6월이 되자 운명의 결전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침략에 나선 가등청정(加藤清正)과 소서행장(小西行長)은 그때까지 함락시키지 못했던 진주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용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공성장으로 선정하고, 20만 병력을 주어 철통같이 진주성을 에워싸고 주야로 실새없는 공격을 퍼부었다.

이때가 1593년 6월 19일이었으며 때마침 장마철에 접어들어 남쪽에서 물려든 검은 구름은 천지를 어둡게 하면서 늦날같은 빗줄기를 퍼붓기 시작하였고 지루한 장마로 변하고 말았다. 논개부인은 낭자군(娘子軍)을 조직하여 치마폭에 돌맹이를 나르고,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에게 퍼붓는 전쟁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장마비에 견디지 못한 성

2) 鄭飛石著 小說「論介」

첩의 동남각이 무너진 것이 6월 28일 황진장군의 영웅적인 싸움으로 적을 막으며 성첩이 보수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일대의 명장 황진장군은 적의 조총탄에 이마를 맞아 전사하고 말았으며, 6월 29일 밤 다시 서남방의 성첩 20여장(丈)이 무너지면서 왜적이 개미떼처럼 넘어 들어와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잔인한 왜적들은 조선 방어군과 무장하지 않은 백성을 합하여 7만여 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는 기록으로 남아있다.³⁾

동방의 석학(碩學)이라 존경받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1836~1906) 선생의 유고 동감강목(東鑑綱目) 제4책(第四冊) 제18하(第十八下) 계사장(癸巳章)에 쓰여 진 글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倭陷晉州 兵使崔慶會 倡義使金千鑑 復讐將高從厚 死之 忠情兵使黃進 牧使張潤共
入守晉州 一城倚之爲重 親負土石 隨機應變 賊仰放丸 穿進右額死 慶會妾論介誘倭
將 游南江中岩石上 抱倭將墮水而死』

「왜적이 진주를 함락하자 병사 최경회(崔慶會), 창의사 김천일, 복수장, 고종후 죽
다, 충청병사 황진, 목사 장윤이 함께 진주성에 들어와 지키니 한 성이 모두 의지
하더라. 친히 흙과 돌을 짊어지고 기회를 따라 응변하더라. 적이 올려다보고 탄
환을 쏘아 황진의 오른쪽 이마를 뚫어 죽였다. 최경회의 첩 논개는 왜장을 피어
남강중의 암석상에서 놀다가 왜장을 안고 물에 떨어져 죽었다.

왜장 꺼안고 남강물에 떨어져

성이 함락되자 최경회, 김천일, 고종후, 이종인, 장윤 등은 남장대(南將臺)
(矗石樓)에 모여 국토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할 것을 협의하고
최경회장군의 임종시(臨終詩)를 읊으며 차례로 남강물에 뛰어들어 순절하였
다. 제장이 북향사배(北向四拜)하고 읊은 시는 아래와 같다.

矗石樓中三壯士 一盃笑指長江水 長江之水流滔滔 波不渴兮魂不死

「촉석루 중에 있는 우리 삼장사 한 잔술로 웃으면서 강물을 가리킨다. 장강물 출
렁이며 도도히 흐르는데 파도가 마르지 않으면 우리 혼도 죽지 않으리.」

한편 부군의 후일을 도모하라는 엄명에 성을 빠져나가 은신 중이던 논개
부인은 성이 함락되고 최장군마저 순절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무한히 비분강
개 하였다.

3) 田炳亨著 義娘論介

제8 편 인물(人物)

논개 표준 영정



丁亥夏月 荇川尹法純謹書



성을 함락시킨 왜적들은 살육과 약탈을 일삼다가 7월 7일을 기해 축석루에서 승전연을 베풀고자 기생을 소집하는 방이 거리에 붙었으니, 이를 본 논개부인이 이것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설욕의 기회라 생각하고 진주고을 수안기생(首案妓生)을 만나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기안(妓案)에게 논개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으니 바로 이때부터 비장한 각오가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칠석날은 왔고 공성에 참가했던 왜장들이 축석루에 모여 들었다. 논개부인은 어여쁘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 서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연회장을 향해 들어 갈 때 위에서 천천히 따라가다가 발길을 돌려 축석루 아래 강가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 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 보자는 계략이었다. 장수지(長水誌) 건권(乾卷) 절의장(節義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崔公以晉州兵使 當壬辰亂時 論介隨去及城陷 盛粧 誘敵將對舞於 南江危岩之上因以同墮江而死後人 其岩 曰義妓岩 立祠江上而祭之

「최공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하였을 때 논개는 공을 따라 갔더라. 성이 함락함에 이르러 어여쁘게 치장하고, 적장을 꾀어 남강의 위태로운 바위에서 춤을 추다가 같이 물에 떨어져 죽었다. 뒷사람이 그 바위에 의기암이라 새겨 이르더라. 강상에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노라.」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 쪽을 내려다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가의 바위 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여인의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 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 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20세의 꽃다운 나이였다.

1740년(英祖 16年 庚申) 진주병사 남덕하(南德夏)가 의기의 정포(旌褒)를 제청하여 마침내 의기(義妓)의 정포사액(旌褒賜額)이 내려졌으며, 의암 주변에 의기사가 지어지고 ‘의기논개지문’이란 정려가 세워졌다. 남강 기슭에 있는 정문안의 송시(頌詩)에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獨峭其巖 特立其女 女非斯巖 焉得死所

巖非斯女 焉得義聲 一江孤巖 萬古芳名

「그 바위 홀로 솟아 있구나. 그 여자 우뚝 서 있도다. 여자는 이 바위가 아니었으면 죽을 곳을 얻었을까 보냐. 바위는 이 여자 아니었으면 어찌 외롭다는 소리를 얻었을까 보냐. 한강에 외로이 선바위 만고에 꽃다운 이름을 얻었도다.」

축석루 옆에 의암 논개부인의 영정(影幀)을 모시는 의기사(義妓祠)를 세웠으며 매년 음 6월 29일을 기해서 축석루에서 삼장사와 제장들과 같이 의암 논개부인의 제향이 집전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바 장수에는 의기 논개생장향수명비(義妓論介生長鄉淸名碑)가 세워지면서 순절일인 7월 7일을 기해 제향이 거행되었으나, 조국광복(祖國光復)과 더불어 1955년 장수읍에 군민들이 의암사(義巖祠)를 세우고, 어전화가 김은호(金殷鎬)화백이 그린 영정을 모시게 되자 당시의 부통령(副統領) 함태영(咸台永)선생께서 친필로 의암사(義巖祠)라 사액(賜額)을 하사하시어 장수와 진주에 사액사당 사액정문을 가진 불세출의 여성이 되었다.

장수의 의암사에서는 제향일을 탄신일인 9월 3일로 바꾸어 매년 엄숙한 제향을 모시고 있다. 그 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의암사에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가 그린 논개영정이 봉안되어 왔으나, 고증결과 복식(服飾)과 머리 모양 등이 당대와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 오던 터에 장수군과 진주시는 논개의 고귀한 얼을 선양(宣揚)하기 위해 전국에 현상공모, 과학적인 고증(考證)을 거친 영정 전문작가의 작품을 선정, 공동으로 제작하여 2008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표준영정(國家標準影幀)제79호로 지정(指定)받아 기존 영정과 교체하였다.

본 영정은 충남대학교 석천(石川) 윤여환(尹汝煥)교수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전통영정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비단이라는 독특한 재질을 살려내는 배채법(背彩法)과 육리문법(肉理紋法)등을 활용하여 얼굴표정에서 배어나오는

전신사조(傳神寫照)로 표현하였으며, 표정과 자세는 의기에 찬 모습으로 열가락지를 끼고 투신순국을 위해 왜장을 향해 가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시각적 동선의 흐름을 주어 역동적이고 힘찬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논개 표준영정은 가로 110cm, 세로 180cm 크기의 비단 바탕에 천연채색(天然彩色)으로 된 정면 전신입상(全身立像)이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 있던 논개 생가터는 대곡저수지 조성으로 인해 주촌 마을 전체가 수몰되면서 생가를 마을 주변의 아담한 곳에 터를 잡아 복원해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에 따라 1986년에 남쪽으로 300여 미터 거리의 도로변에 약 8,000여 평의 길지를 마련, 몸채 초가삼간(三間), 행랑채 초가삼간(三間)의 생가 복원을 하고, 유희비, 사적비, 동상 등을 조성 했다. 2000년에는 논개의 할아버지 주용일훈장이 경상도 서상에서 민재를 넘어 새터를 잡아 서당을 차렸다는 궐촌(주촌)마을 옆 용일씨(논개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주변 일대 약 18,000여평의 부지에 생가(몸채, 행랑채, 우물)와 기념관, 의랑루를 축조 했으며, 의암 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 유희비, 사적비등을 이진 했으며, 충의공 최경회현감 선덕추모비도 세웠다. 또한 논개 부모 묘소라고 구전 되어온 곳에 묘소 복원도 했다. 1996년 봄에 주촌(궐촌) 입구에 정려를 복원했다.

최경회 장군을 따라 진주성에 가서 용감하게 싸운 장수 의병들은 성이 함락되면서 수백명이 야음을 틈타 진주성을 탈출하여 부근 산간에 숨어 유격전을 벌이던 중 최병사와 제장의 죽음과 논개부인의 장렬한 설욕의 순절을 탐지하고 시체라도 고향땅으로 같이 돌아가려는 충정에서 남강 하류의 수색작업을 개시하여 창원 지수목에서 최장군의 시체와 왜장을 꺼안은 채 떠내려 온 논개부인의 시신을 한꺼번에 발견하기에 이르러 장장 150리길을 운구하여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 이르러 주씨문중(朱氏門中)과 장사 지낼 것을 타협하였으나 왜적의 추격과 보복이 두려운 주씨문중의 거절로 실의에 빠진 의병들은 삼남대로(三南大路)변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 잡아⁴⁾ 최경회장군을 윗쪽에 논개부인을 아래쪽에 장사지내고 그리웠던 고향땅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근세조선 말엽의 장수의 석학이신 우재(愚齋) 오덕렴(吳德濂) 선생의 유고(遺稿) 경독재집(耕讀齋集)의 인물편 최경회장(崔慶會章)에 「崔慶會 長水縣監 晉州兵使 龍蛇之亂 晉州敗殘長水義兵 收崔兵使義巖屍身運柩 安義縣西 上面芳池里 堂山後麓 安葬云」

4) 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산 31번지

「최경회 장수현감 진주병사의 벼슬에 있었다. 임진 계사의 난리 때에 진주에서 패전하고 살아남은 장수의병이 최병사와 의암 주논개부인의 시신을 거두어 운구하여 안의현 서상면 방지마을 당산 뒤쪽 골짜기에 묻었다하더라.」



이러한 기록으로 또는 생존해서 고향에 돌아온 의병들이 후손에게 남겨준 설화는 대를 이어 장수고을에 전해져 오기에 의암 사적 보존회에서 문헌과 구전을 토대로 현장 탐문 조사와 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과 향토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친 끝에 논개 묘역이 1976년에 발견되기에 이르렀으며, 1980년대 후반 함양군의 논개 묘 성역화사업으로 봉분을 다시 만들고 비석을 세우며 주위를 정화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였다.

묘의 규모는 높이가 1.2m, 직경이 5.4m, 길이 5.3m에 달하는 대형분묘가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1년 후인 1593년 6월 29일 진주성이 함락된 후 성 아래 바위에서 왜장을 꺼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한 날을 추모하고 충절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 7월 7일을 기하여 유림에서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묘 위측에는 임진왜란 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부임되어 진주성에서 싸우다 순절 하신 최경회 장군의 묘도 함께 있고, 주변에 반장의병추모비가 있으며 넓은 광장과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순절한 후 382년만에 발견된 두 분의 유해를 살필 때 실로 몸은 죽어도 충절의 영혼은 만물되지 않음이 여기 증명되었으니 ‘물결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들 혼백도 죽지 않는다.’는 최경회장군의 임종시(詩)는 헛된 것이 아님이 뚜렷이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석학문장의 숭모하는 글

일본의 침략에 항거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대문장가이며 시인인 매천(梅泉) 황현(黃鉉) 선생은 의암 주논개부인의 충절을 칭송하여 다음과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鬚眉拜義娘 蕙質何由能殺賊 藁砧已自使編行 長溪父老誇鄉產 蠡石丹青祭國殤 追想穠陵人物盛 千秋妓籍一輝光」

「신내 나무에 물까지도 향기롭구나, 내 얼굴 깨끗이 씻고 의랑에게 절하노라 가냘픈 채질로서 어찌 적을 죽였느냐. 남편도 벌써 군대의 행렬에 서 있었네. 장계 늙은이들 우리고장출신임을 자랑했네. 자랑하고 축석루 화려한 단청은 순국의 열제 올린다. 돌이켜 생각하니 선조시절 인물도 많았지만 천만년 기적에 제일 빛을 남겼도다.」

현대시(現代詩)의 거장 수주(樹洲) 변영로(卞榮魯)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읊어 세상 사람의 심금을 애달프게 하였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영정각

20세의 일생을 홍모와 같이 저버린 의암 주논개부인의 삶은 짧았으나 그의 정신은 억천만년을 통하여 한국사람의 뇌리에 되새겨질 것이며, 그의 꽃다운 이름은 장수고을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세상이 우러러 보는 선비나 학식이 높은 학자나 평범한 백성까지도 성현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 없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

충의문



겠으나, 알면서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행실이라 할 것이다. 충(忠) 효(孝) 열(烈)의 세 가지를 인간의 삼원(三元)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조행(操行)을 갖추었다면 삼덕(三德)을 갖추었다고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양이 되었다면 성현(聖賢)의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며, 사사로운 욕심이나 일신상의 편안함을 꾀하는 범인(凡人)의 처사에 비교해 보면 그 얼마나 의연하며 또한 얼마나 고상함인가.

의암 주논개부인은 삼덕을 갖추고 삼강을 실천하였으며,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홍모(鴻毛)와 같이 버리고 순절하면서 국난(國難)을 구하고 국치(國恥)를 설욕하였으며, 왜구(倭寇)의 칼날 아래 죽은 무수한 백성들과 그의 부군인 경상우병사 최경회장군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한마저 풀었으니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라.

동양에서 태어난 인류 최고의 성인(聖人) 공부자(孔夫子)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가르쳐 '신체를 죽여서라도 인의를 이룩함'이 사람이 취해야 할 도리라 하였으며, 공부자의 도(道)를 가장 충실하게 후세에 전달하여 아성(亞聖)의 칭호로서 존경하는 맹자(孟子)께서는 사생이취의(捨生而取義)를 주장하시어 '생명을 버리더라도 의리를 취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니 신체를 죽여서 인의를 이룩하고 생명을 버려서 의리를 취하신 의암 주논개부인의 거룩하신 순절은 천만년 후세에까지 우리민족의 사표로 국가와 민족의 수호신으로 숭앙하여 마땅할 것이다.

의암주논개의 삼대 정신(義岩朱論介의 三大 情神)

첫째, 제 몸을 불살라서 주변을 밝히는	인애정신(仁愛情神)
둘째, 패권주의에 맞서 끝내 항거한	의용정신(義勇情神)
셋째, 사대부도 아닌 아녀자의 몸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지아비를 사랑한	충렬정신(忠烈情神)

의암주논개 년보(年譜) 약사

-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현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됨.
- 1579년(6세) 이른 봄, 장수현감 최경회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관비를 자청, 김씨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회를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회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회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회가 담양부사로 재직 시 부사의 아내가 됨.
최경회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1592년(19세) 최경회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 함.
- 1593년(20세) 최경회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회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제2 절 왜장도 감복한 충복(忠僕) 정경손(丁敬孫)

왜적 장수에 침입

임진왜란 당시를 돌이켜 보면 높은 관직에 있어 많은 국록을 받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고관대작들까지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쳐 나라의 운명이나 백성의 안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무수히 들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은바 직분을 완수하는 것은 충실하다 이르고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칭송하고 포양(褒揚)함을 아끼지 않았다.

1597 년(宣祖 30年, 丁酉)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었으니, 장수를 지켜 왜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은 의병장 최경회(崔慶會)장군이 진주성에서 순절한 후 우리고장 장수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전라도의 관문인 남원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진격하는 왜적은 거침없이 육십령을 넘어 싸움 한 번 없이 장수땅을 통과하였으니, 장수현감이나 우리고장을 지키던 관군들도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왜적들은 무인지경으로 날뛰고 약탈을 일삼으며 갖은 행패를 다 부렸다.

이런 경황에도 불과 교직(校直)의 신분으로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홀로 성전(聖殿)에 남아 왜적의 출입을 금하는 소임을 다하는 용감성을 보인 공의 자세는 범인(凡人)의 자세를 초월한 위대함이 있었다. 이러한 절운의 담기(膽氣)와 용맹성으로서 양반가문에 태어났으면 권을, 이순신장군에 못지않은 국가의 동량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추상같은 의기(義氣)와 충성심에 감복한 적장이 오히려 ‘이 성역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신표(信標)를 써서 정문에 붙여줌으로써 장수향교 건물을 보전할 수 있었다.

장수현감(長水縣監)으로 부임한 정주석(鄭胄錫)공은 정경손의 충절을 조정



정경손 수명비

에 장계로 올려 예조(禮曹)에 포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장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삼강록(三綱錄)의 충신편에 수록게재 함으로써 장수삼절(長水三節)로까지 추앙하게 되었으며, 삼강록에 기재된 원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敬孫 性丁被僕壬亂倭寇犯被宮 敬孫伏於 廟陸終始不變 義之因給信標 聖殿賴安立 碑致祭」

「경손 성은 정씨이며 향교의 노복이었다. 임진란을 당하여 왜적이 향교의 교궁을 침범하였을 때 경손이 묘당의 계단에 엎드려 처음부터 끝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왜적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하고 따라서 신표를 주어 이로 말미암아 성전이 편안하였다. 비를 세워 제사 지내게 하였다.」

유교(儒敎)를 국교로 하는 조선조(朝鮮朝)에서는 국교의 상징인 향교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유림을 중심으로 팔도(八道)에서 일어난 의병(義兵)들에게 시달려 온 왜적들이 구국근왕(救國勤王)정신의 총본산인 향교를 보고만 있을 리 만무하였다.

성현들의 도의교육에 의한 구국정신을 말살하는 방편으로 왜적들은 진주하는 고을마다 향교만은 반드시 불태워 버리는 것을 철칙으로 알았으니 장수향교를 본 왜적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다.

가는 곳마다 유림이나 교직이 도망쳐 버리고 빈 성전만 있었는데, 장수향교만은 정문의 계단에 전복(殿服)으로 정장한 정경손이 단정히 앉아 추상같은 호령을 하였으니 ‘여기는 성전(聖殿)이니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꼭 들어가려거든 나를 죽이고 들어가라’고 하는 공의 늠름한 기세와 그 담대하고 용감한 기풍에 금수와 같은 왜적들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휘하던 왜장은 공의 충성심과 늠름한 기상에 감복하고 즉시 지필묵을 챙겨 ‘이 성역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글을 쓴 신표를 공에게 주었다. 이 글을 향교 정문에 붙여 놓은 후에는 왜병은 이것을 보고서 향교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따라서 유일하게 장수 향교 건물만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었다.

정경손공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수호로 불타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으니 조선건축사에 정수라 할 수 있는 주신포형 맞배집이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오게 되었다. 후세에 장수현감 정주석선생은 장수향교 앞에 호성충복정경손수명비(護聖忠僕丁敬孫暨名碑)를 세우고 다음의 글로서 찬양하였다.

「龍蛇之亂 萬波同靡 滔滔救死 義聲無幾 悽曾入于校宮 當時光景 天日雖臨 五聖之位 幾危且安 伊誰之力 古忠僕丁敬孫 伏于廟陞 誓死守護 終始無變 慷慨毅膽 抗秋霜而難犯 則無義悽賊 感其秉執之義 後來之倭 勿犯之意 書信書以與 嗚呼 天地間 正直之氣 在人而不屈則 當日忠僕之素守 可敵百萬雄師 可不敬歟 愧比老 白頭腐儒 終無成已之功 感激於其義 今於豎名傳後 猥以忘其辭拙 實謹識」

『임진 계사 난리에 온갖 파란을 다 겪으니, 도도(滔滔)히 살 길만 찾아 의성(義聲)이 드물었다. 왜주(倭酋)가 향교에 들어오니 당시 광경은, 태양은 조림(照臨)하고 있지만 오성신위(五聖神位)가 위태로운 지경에서 편안하게 된 것은 누구의 힘인가! 옛날 충복(忠僕) 정경손(丁敬孫)이 문묘(文廟)의 뜰에 엮드려 죽기를 맹서하고 수호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니, 그 늠름하고 굳센 담력이 추상(秋霜)과 같이 범키 어려운지라, 의리 없는 왜적도 그 타고난 의로움에 감복하여 '뒤에 따라오는 왜(倭)는 침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신서(信書)를 써서 주니, 오호라! 천지간에 바르고 참된 기운은 사람에게 있어 꺾이지 않는 것인 즉, 당일 충복이 지킨 것은 백만웅사(百萬雄師)를 대적할 만하니 공경스럽지 않은가! 부끄럽게도 이 늙은이는 흰 머리 썩은 선비로 마침내 성기(成己)의 공이 없으나, 그 의로움에 감격하여 지금 이름을 세워 후세에 전함에 있어 외람되게도 글 못함을 잊고 사실만을 주워서 삼가 기록하노라.』

이 비석을 세움과 동시에 장수삼절(長水三節)로서 의암 주는개, 순의리와 더불어 호성충복 정경손공이 추앙되었다.

공의 이름은 경손(敬孫)이며 성은 정(丁)씨이고 관향은 창원(昌原)이다. 선조는 중국 당나라에 살았는데 853년(新羅文聖王 15年 渤海咸和 24年 癸酉)에 고구려의 후신인 발해(渤海)로 들어왔으며, 휘 연방(衍邦)은 고려국의 대호군(大護軍)의 벼슬에 올랐고, 휘 환문(煥文)은 도사(都事)의 벼슬에 올라 고려 초부터 말엽까지 명문가를 이룩하여赫赫한 양반의 가문이었다.

그러나 공의 년대에 와서 천역(賤役)으로 신분을 격하시킨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짐작하건데 이성계(李成桂)의 반정에 항거하던 고려의 수절신(守節臣)의 후손이거나, 조선에서 고려의 명관들을 유배시켜 배소에서 죽게 하였으니 그 후손들이 갈 곳이라고는 이러한 천역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하여간 양반가문의 후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은 기구한 운명의 장난으로 장수향교의 교직이라는 천역을 감수하고 성묘(聖廟)를 지키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충실히 책임을 완수하였다.

장수가 낳은 문장가 손암(巽庵) 유위(柳偉) 선생은 정경손공의 충절과 의기를 아래와 같이 절구(絕句)를 지어 읊었다.

「兵却亂離人事窮 有誰護聖守瘁官 勁草疾風丁僕在 褒揚恨止戶長公」

「전쟁이나 난리가 나면 인사마저 궁한데 누가 있어 성현의 위패와 향교를 지킬까.
거센 바람에도 지조 굽히지 않은 정충복이 있었으니 호장으로 포상한 데 그친 것이 한이로다.」



정경손비 제례봉

정공(丁公)은 왜란이 끝난 후 장수현의 호장(戶長)으로 발탁되어 그 공을 포상 받았으며, 군민의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마쳤다.

수면비각은 1976년 장수향교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수향교 정문인 부강문(扶綱門)의 좌편에 이진되어 새롭게 단장되었고, 정경손공은 영혼이 되어 400여년을 넘기까지 장수향교를 수호하고 있으니 몇천년이 되어도 정경손공의 충절의 영혼은 만물되지 않을 것이다.⁵⁾

5) 三綱錄, 長水誌, 豎名碑,
海東風雅

제 3 절 현감 따라 목숨 버린 순의리(殉義吏)의 절의(節義)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하면 임금과 스승, 아버지는 한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요, 군주부일체(君主父一體)라 함은 임금과 주인, 아버지는 동류(同類)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으나 군신(君臣) 주종(主從)의 관계가 명확하던 조선조시대에는 군신의 관계와 주종의 관계는 동일시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으며, 또한 이것을 가르치고

타루비 제례

권장하여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였으니, 봉건사회의 노복(奴僕) 제도는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법도가 필요하였으며 규율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당시의 노복(奴僕)제도에는 사노(私奴)와 관노(官奴)가 있었다. 일반 개인이 거느릴 수 있는 것이 사노이며, 관청에서 거느리는 노복이 관노인 것이다. 고을의 수령인 현감에게는 삼노(三奴)라는 관노를 거느렸으니 호창(呼唱), 사령(使令), 통인(通引)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직책에 있는 관노는 항상 현감의 좌우에 대기하여 주위를 벗어날 수 없으니 엄격히 따지면 현재의 비서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척애(長尺岬)에서 상전(上典)의 죽음을 따라 순사(殉死)한 순의리는 군주부일체라는 당시의 철칙을 엄연히 지켰으며, 자기 자신이 주인을 잘못 모셔 주인이 비명횡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홍모(鴻毛)와 같이 버리고 충성을 다하고 주종간의 의리를 지켰으니, 비록 신분이 관노인 하잘 것 없는 존재였으나, 슬기로운 우리들 선조들은 조정에 장계를 올려 예조(禮曹)의 포상을 받게 함과 동시에 삼강록(三綱錄)에 게재케 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상징인 장수삼절(長水三節)로 추앙하게 되었다. 삼강록에 기재된 기록을 참조하여 순의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보기로 한다.



삼강록(三綱錄) 충신(忠臣)편

「陪吏 失姓名 陪本倅 去巡營路絕壁 雉飛馬驚 本倅墮而死 陪吏義不忍獨生 亦從而死 自官立碑名以 墮淚致祭 世稱三節」

「수행하는 아전 성명은 잊었다. 본 고을현감을 수행하여 전주감영을 가는 절벽 길을 가다가 굉이 나르는 소리에 말이 놀라 본 고을현감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다. 수행하는 아전은 의리상 혼자서 사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하여 역시 따라서 죽었다. 관으로부터 비를 세우고, 그 비 이름을 ‘타루비(墮淚碑)’라하여 제사 지내다. 세상에서 이르기를 장수삼절이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 장수군민의 상징인 장수삼절의 기원(起源)과 유래(由來)를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사서(史書) 또는 고문서(古文書)의 기록(記錄)으로 처음 나타나는 고증(考證)이 바로 이 삼강록이니, 백천마디의 말보다는 이 기록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순의리가 생존하던, 숙종년대에 우리 장수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장수지(長水誌) 건(乾) 권지삼(卷之三) 제35장 절의편, 순의리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殉義吏 姓名逸而不傳 肅廟戊午三月二十二日 以秋椽吏陪縣監 趙宗冕 適完營過長尺巖 雉鳴馬驚縣監墜死肅下深淵之中 吏指天痛哭 曰我失我侯我女生爲 遂嚼指畫雉馬之形於層岩之左 又血書墮淚二字 於削壁之右 倂投水而殉 血蹟宛然如昨 炳朗忠節 焜耀千古也 去壬戌 縣監崔壽亨 狀其蹟而歎其沒 斲石書墮淚碑 又建小閣」以下略」

「순의리 성명은 잊어버려 전하지 아니하였다. 숙종조 무오 3월 22일 형조의 아전으로서 현감 조종면을 배행하여 완산의 감영으로 가던 중 장척애를 지나가다 굉의 울음소리에 말이 놀라 현감이 단애 밑 깊은 소에 떨어져 죽었다. 배행하는 아전은 하늘을 가리키며 통곡하면서 가로되 ‘내가 나의 현감을 잃었으니 내 어찌 살아있기를 바라리오.’ 하고 드디어 손가락을 깨물어 굉과 말의 그림을 층암의 좌편에 그리고, 다시 ‘타루’ 두자를 깎아지른 절벽 오른쪽에 혈서로 쓰고서 이내 물로 뛰어들어 순사하였다. 피의 흔적이 완전히 남아 낭랑한 충절이 천고에 환하게 빛나도다. 지나간 임술년에 현감 최수형이 그 상황을 살피고, 유적이 민물 되는 것을 한탄하여 돌을 깎아 ‘타루비’라 쓰고 또 조그마한 비각을 세웠다.」⁶⁾

(이하는 생략함)

참고한 문헌과 같이 순의리는 1678년(肅宗 4年 戊午) 당시 장수현감 조종면(趙宗冕)의 수하에 있던 아전이었으나 그 성명이 실전(失傳)되어 누구인

6) 註 . ① 秋祿 刑曹의 別稱

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조현감은 명관의 칭송을 받던 현감으로서 항상 필마단기(匹馬單騎)로 아전 한사람에게 말고삐를 잡히고, 현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정을 시찰하는 것이 상례였으며, 현내 백성의 불평불만을 찾아서 해결하고 권농·홍업(勸農興業)의 정책을 지도하여 현민을 편안하게 하였다.

조현감이 비명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장수군민은 장수읍과 천천면 장판리의 두 곳에 거사비(去思碑)를 세운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인품이나 치적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1678년 봄도 무르익은 3월 22일 조종면현감은 아전 한사람에게 말고삐를 잡히고 완산 감영에 가기 위해 현청을 떠났다.

때는 바야흐로 모춘삼월이라 산밑 양달쪽에는 새싹이 돋고 산과 들에는 살구꽃 진달래가 만발하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언덕너머 마을이 평화스럽게 보이는 고을 풍경을 구경하며, 신북면(身北面:天川面) 장척마을 앞, 절벽이 천야만야한 비탈길(속칭 壯尺崖)에 당도했을 때, 길 옆 수풀 속에서 장끼 한마리가 봄우름을 울다 제 우름에 놀란데다 인기척에 놀라 ‘푸드드’ 하고 하늘로 솟구쳐 나르니, 현감이 탄 말이 놀라서 길길이 뛰는데, 엉겁결에 놀란 아전은 말고삐를 끌어당길 겨를도 없이 말과 말에 탄 현감이 뒤덮여 도도히 흐르는 소의 물결 속으로 떨어져 잠겨 버리며 떠내려갔으니 아전으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하류에 내려가 조현감을 인양하였을 때는 이미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후였다. 아전은 자기가 모시던 조현감이 죽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혼자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무슨 이유로 조현감과 자신이 죽었는가를 후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절벽에 핏 한마리와 말 한마리를 그리고 그 반대편에 타루(墮淚)란 두 글자를 쓰고서 현감이 떨어진 심연(深淵)으로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주인따라 순절한 아전

그가 주인을 따라 죽어 주종의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했으니 범인(凡人)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높은 절개라 할 것이다.

후세사람들은 순의리 절의를 존중하여 비를 세우고 칭송하여 제사 지내며 또다시 장수삼절(長水三節)로 추앙하여 장수사람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124년이 지난 1802년(純祖 2年 壬戌 8月) 당시 현감으로 부임한 최수형(崔壽亨)은 타루비(墮淚碑)를 세우고 비문을 다음과 같이 썼다.

「墮淚碑者 本縣隨陪吏 殉忠碑也 歲三去戊午三月二十二日 知本縣趙候宗冕 路過縣西長尺肅肅下有湫 不幸馬驚轉于湫卒逝 一陪吏 嚼指血書 墮淚二字於肅上巖石仰天誓水曰 余陪余侯 余失余侯 余向何歸 卽殉死其所 書血字 閱氣劫 不磨不洗 宛如昨日書 精忠所到金石實矣 蓋此吏殉死 想其忠膽 雖古烈士 何以過此 纔經百年 古老不存 亡其名姓 僻陬無史 泯其遺蹟甚可慨也 余知縣二年秋 爲斲小石於其傍 書墮淚碑三字 略記其蹟 以旌其忠云崇禎三壬戌 秋 知本縣 崔壽亨 記

「‘타루비’라는 것은 현감을 배행하던 아전이 충의에 순절한 비이다. 때는 숙종 4년(무오년) 3월 22일 본현의 현감 조후종면이 현의 서쪽에 있는 장척(長尺)의 비탈길을 지났다. 벼랑 밑에는 소(沼)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말이 놀라 굴러 소로 떨어져 졸연히 서거하였다. 배행하는 아전이 손가락을 깨물어 벼랑위의 바위에다 타루(墮淚) 두자를 피로써 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물에게 맹세하면서 이르되 ‘나는 나의 현감을 배행했으며, 나는 나의 현감을 잃었다. 내가 오히려 어찌 되돌아가리오!’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순사하였다. 피로 쓴 글자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달아 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으며, 완연히 어제 쓴 것과 같으니 정충(精忠)이 다다른 곳에 금석과 같은 진실이 있음이로다.

모름지기 이 아전이 순사한 것을 생각해 보니, 그 주인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비록 옛 열사로도 어찌 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인가. 겨우 백년을 지냈는데 옛 사람들은 그 성명을 잃어버려 보존하지 않았도다. 궁색한 골짜기여서 사기가 없어 그 유적이 민물 되었으니 심히 부끄럽도다. 내가 본현의 현감으로 부임한 2년의 가을 작은 돌을 깎아 그 곁에 타루비 석자를 쓰고 대략 그 사적을 기록함으로써 그 충성을 밝히노라.」

승정기원후 세번째 임술년(서기 1802년) 가을
본현 현감 최수형 씀.

원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충성스러운 통인의 성명마저 잃어버리고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으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장수출신 문장가로 명성을 떨친 손암(巽庵), 유위(柳偉) 선생은 순의리 충절을 기려 아래와 같은 절구(絕句)를 읊어 높은 기상을 찬양하였다.

「雉馬相驚驀地同 千秋石面血痕紅 令人墮淚添江咽 凜凜孤松萬壑風」

「평과 말이 서로 놀라 함께 땅을 박찬 뒤에
석면에 피 흔적이 천추토록 붉어라.

사람들 눈물 흘려 강물 더해 흐느끼니
 능름한 외로운 소나무 여러 골짜기에 바람뿐。」

충절을 다하고 순절한 순의리에게 무슨 칭송의 말인들 아까울 것인가. 장척애 옆에 타루비를 세우고서 세상 사람들은 또 한번 기적을 발견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비각 속에 들어있는 비석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린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비석이 눈물을 흘린다고 전했다. 비석이 눈물을 흘림은 필경 순의리의 영혼이神通력을 발휘하여 그런 징조가 생긴다고 전해져 오니 신비스러운 일이다.

주인에게 바친 충성이 생명까지도 새의 깃털같이 가벼이 여긴 순의리의 영혼이 비석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라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각의 기둥에는 아래와 같은 주련(株聯)이 붙어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義重泰山取其熊掌 足踏探淵視以鴻毛」

「의로움이 태산과 같으니 곰의 발바닥을 취함과 같고

깊은 못 속을 밟았으니 목숨을 기러기 깃털과 같이 가벼이 보더라.」

최수형 현감이 세운 타루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좌대부분에서 부러져 다시 부러진 부분을 버리고 남은 비석을 세웠으나 볼품없는 비석이 되었다. 따라서 지방 사람들의 발의에 의하여 1881년(朝鮮 高宗 18年 辛巳)당시의 현감 이헌승(李憲承)이 순의리비(殉義吏碑)를 세우고 비각을 증수하여 이후로 비각에는 두 개의 비석이 서있다. 그러면 절벽에 그려진 꿩과 말의 그림과 타루 두자의 글씨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장척애(長尺峴) 부근은 절벽으로 인하여 현대식 도로를 개설하는데 불편한 장소였다. 그림과 글자의 혈흔이 1960년대 까지 엄연히 남아 있었으며,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66년의 대홍수로 하천쪽으로 옹벽을 쌓아 통행하던 도로가 유실되어 통행을 못하게 되자, 군 당국에서는 절벽을 발파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 설계가 완성되어,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인사들의 반대여론이 높았으나 당시 무식한 관장의 독선으로 드디어 1967년 봄 굉장한 발파소리와 함께 순의리 혈흔이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고 말았다. 개성 선죽교(善竹

橋)의 정몽주(鄭夢周)선생의 혈혼과 장수 순의리 장척애 혈혼이 쌍벽을 이루었으나 이제 그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 무식한 관장들의 폭거가 얼마나 무서운 오류를 저지른 것인지 놀라울 뿐이다.

장척애 근방에 세워진 비석은 훌륭한 비각이 건립되고 화려하게 단청되었으며, 매년 음 3월 22일 본군 군수 주재로 제향을 올려 무명의 순의리와 비명에 가신 조종면현감의 영혼을 달라고 있으니 장수군민의 순의리를 추앙하는 정신도 특기 할만 할 것이다.⁷⁾

7) 長水誌, 三綱錄, 全北誌, 湖南誌, 碑文